

# 남구, 국민체육센터 26일 첫삽... 연말 준공

생활SOC 사업선정...74억원 투입 BF 인증 등...관련 행정절차 완료 지상 3층 규모...체육시설·주차장

광주 남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오는 26일 첫 삽을 뜬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후 1

월복합운동장 풋살장 일원에서 남구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이 열린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22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 사업 선정과 함께 사업비 74억원을 투입,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여가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남구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현장 설명회부터 주민 의견 청

취 보고회와 설계 용역 실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까지 완료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했다. 센터는 지상 1층 필로티 구조의 지상 3층 건물로 짓고, 건물 내·외부는 각종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의 시설로 채워질 예정이다. 1층은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포함해 차량 59대를 수용하는 주거지 주차장이 들어서며, 2층에는 샤워실과 사무실, 공동 회의실이 마련된다. 3층은 탁구와 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즐기는 체육관 형태로 조성된다. 남구 관계자는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진월동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방점을 찍게 된다"면서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건립 공사를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우수 선정 북구, '북구돌봄' 등 호평

광주 북구는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광주 유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후원과 건국대학교 건강고령사회연구원의 주최로 개최된 해당 평가는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응을 도모하고자 시행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이번 정책대상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시설', '교통', '주거', '사회활동', '일자리', '돌봄 및 보건' 등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의 전국 지자체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졌고, 그 결과 북구를 포함해 총 6곳(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의 우수 지자체가 선정됐다. 북구는 '노년의 삶이 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북구'라는 주제로 평가에 참가해 △고령 친화적 생활공간 조성 △스마트 시니어 사업 추진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 정책에 대한 탁월함을 인정받아 광주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40개소 조성사업'과 지역 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북구형 통합돌봄 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을 위한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호평받았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직자들과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 주민 아이디어로 지명 발굴 나선다 광산구, 내달 7일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가 시민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지명 발굴에 나선다. 광산구는 이름이 없거나 호칭이 제각각인 지형, 시설물에 역사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명(地名)'을 부여하기 위해 시민 제안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부터 교량, 터널, 교차로와 같은 지형 또는 시설물의 이름을 말한다.

광산구는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시되지 않은 지명, 지역 정체성에 맞지 않는 지명을 정비하고, 지형, 표준지명 부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명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3월7일까지 광산구 시민 누구나 공식 명칭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지형, 시설물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

신청은 광산구 누리집 등에 게시한 웹자보 QR코드에 접속해 하거나 전자우편(ansaofud@korea.kr)으로 제정 또는 변경했으면 하는 지명과 해당 지형·시설물의 상세한 주소를 적어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062-960-3825), 문자(010-3143-0739)로도 참여할 수 있다.

광산구는 시민 제안, 아이디어를 접수한 뒤 전문가 자문, 주민 의견 수렴, '광산구 지명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지명 제정 여부를 검토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명이 제정되면 위치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 시민 생활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 동네를 잘 아는 시민의 아이디어로 문화·역사적 맥락과 지역 정체성을 살린 지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명 찾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참여 문의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062-960-3825)에 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가 교차로, 지하차도, 마을, 저수지 등에 부여해 고시한 지명은 총 376개다. 최근에는 첨단지하차도, 단전 어린이공원, 하남물어린이공원 등의 지명을 제정했다. 김상철 기자



제4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22일 서구 동천교 일대에서 열린 '제4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에서 서구민과 함께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제공

## 서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

### 여성·아동 권익보호 활동에 앞장

광주 서구는 지난 2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여성친화도시 실현에 앞장설 시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시민참여단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함께하는 돌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서구, 평등하고 포용적인 서구" 실현을

을 위한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올해 서구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바탕으로 매일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을 제안하고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강미숙양성아동복지과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별에 관

계없이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시민참여단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23년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그동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운영을 활성화해 공중화장실 안전 및 안전 골목 조성, 안심택배 보관함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일상 속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상이 기자

##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한 특례보증 사업 운영

### 1년간 5.5% 이자 지원

광주 동구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지난 21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유동성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일 광주은행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으며, 동구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2억원 규모 내에서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 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로,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보증 규모 중 30%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 동구는 사업주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0.7%(1년)의 보증료를 지원하는데 특히, 1년간 소상공인의 이차 부담이 전혀 없도록 5.5% 이내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민현기 기자



광주 동구가 지난 21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 동구청 제공

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사업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자동심장충격기' 일제 점검 서구, 10개소 20명 점검반 가동

광주 서구는 오는 25일부터 급성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오는 6월 말까지 설치 의무시설 180개소와 의무 외 시설 260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440대에 대해 △본체 및 부속물, 보관함의 손상 상태 △패치 및 배터리의 유효기간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 참여자 10개소 20명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19일 점검 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유의 사항과 자동심장충격기 작동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상용보건행정과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기기다"며 "일제 점검을 통해 상시 구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기기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사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